

월요광장

바벨탑과 잃어버린 말을 찾아서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인간의 오만과 탐욕을 이야기하기로는 바벨탑이 단연코 대표적이고 특별하다. 흔히 이 탑은 현재에 주어진 삶을 넘어서 감히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 욕망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바벨탑 이야기는 성경에도 기록될 만큼 그 의미가 크다. 탑을 쌓은 사람들은 바빌로니아인들로 '바벨'은 곧 바빌로니아라는 고대 도시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바빌론에서 이교도의 탑이 하늘을 향해서 끝없이 올라가는 것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저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아뮴은 이렇게 탄식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이고 있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쏟아지는 관련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러가지 언어로 쪼개지고 나뉘진다. 상호 소통을 가능하게 했던 공동체의 언어가 이제 조각난 채 혼란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서로 하는 말은 무의미하게 되었고, 탑을 위해서 뭉쳤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떠나갔다. 견고한 도시와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세워서 자신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려고 했던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바벨탑이 단순히 인간의 탐욕과 오만에 관한 이야기일까? 바벨탑 이야기를 뒤집어서 읽으면 '하나의 언어'가 가지는 힘과 능력의 의미가 눈에 들어온다. 바벨탑은 실상 은유일 뿐 문제의 본질은 인간이 가진 상호 소통의 능력이다. 이 소통 능력이 있기에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위협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비단 바빌로니아인들의 그 전설적인 탑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더, 하나의 언어와 말을 사용하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상호 왜곡과 오해 없이 사는 세상이 위협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오히려 소통 능력을 상실한 관계와 사회 속에서 함께 희망하고 설계할 수 있는 미래란 없다. 공동체의 하나로 통합

된 언어를 상실한 대가는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동체의 파괴이며 집단 목표의 상실이다. 이렇게 보면 공동체에서 필요한 하나의 언어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며 최선의 것이 아닐까?

바벨탑에서 보듯이 언어의 분열이 곧 사람 사이의 분열이다. 소통 불가능한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 역시 분열과 분열의 정당화를 위한 왜곡이다. 소통은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지점을 지향한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 하나의 언어가 '나의 언어여야 한다'는 독단을 넘어설 때 비로소 조금씩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언어가 곧 모두의 언어여야 한다고 믿으며 서로에게 강요하고 고집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모두가 '말이 통하는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세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좋은 세상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수사로 그치지 않는 힘은 자신들은 비밀스럽고 견고한 또 다른 바벨탑으로 '하늘에 이르른' 특권과 권력을 고집하며 '바벨탑'으로 단죄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쌓아 올린 바벨탑을 더 높고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낡고 쇠락한 가치로 흥분스러운 언어의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

마르타 마누히이라는 아르헨티나의 미술가는 바벨탑의 의미를 "모든 예술가들의 꿈,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내부 갈등이 없는 곳"이라고 말한다. 바벨탑의 의미를 뒤집어서 모두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며 말이 통하는, 이상적 공간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벨탑은 하나의 언어가 이미 지나간 이야기 아니고 미래의 이상향을 은유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시선을 허락한다. 바벨탑의 무너짐은 소통적 언어와 대화적 공동체의 무너짐이다. 탑이 무너진 이유 또한 아뮴의 분노가 아니고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서로를 질시하고 배제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언어는 권력의 위장과 왜곡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진실의 표현과 공유를 위한 통로다. 자주 맥락 없는 수많은 언어의 파편들은 서로에게 다가가는 길 대신에 배제와 편벽기의 유희만을 본다. 이제, 힘과 권력의 증표가 된 혼돈의 말을 반복 생산하는 대신에 모두를 위한 '하나의 언어'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기고

복지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



차종천  
광주시 북구청 복지교육국장

우리나라의 올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61조 원으로, 총 지출의 34.3%에 달한다. 실직, 질병, 휴·폐업, 가족 해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쓰이는 예산이다. 안타깝게도 고립된 채 살아가는 위기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쏟아지는 관련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동안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 모두 노력하였고 최소한의 틀은 구축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낮고 불만은 산재해 있다.

지금까지 복지는 신청자가 행정 기관을 찾아오는 수동적인 복지가 주를 이루

었다. 주민이 복지 서비스의 내용과 신청 자격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자신이 위험에 빠져 힘들어져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대상 자임에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자존심 때문에 신청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현재의 생활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사는 동안 누구나 성공해서 그 결과를 오랜 기간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능력에 관계없이 생활고와 외로움에 빠져들 수 있다. 특히, 노년에는 빈곤·질병·고독의 3고(三苦) 현상으로 상실감과 소외감이 들 수 있다. 이때는 위험과 불행은 함께 해주는 이웃, 함께 손잡고 희망을 향해서 걸어갈 이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수동적 서비스에서 능동적 서비스, 그 전환점의 시작으로 우리 광주 북구에서는 민간과 상호 협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복지 1촌 맺기 사업'으로 1인 가구를 전수 조사하여 위기 가구를 정기 방문하고 있다. 또한 휴대 전화를 활용한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와 IoT 응급 알림 서비스 기기를 설치하

여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식생활의 어려움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복 나눔 냉장고 운영 사업'을 하고 있다. 북구 관내 9개 기관에 냉장고를 설치하여 누구나 냉장고에 음식물을 기부하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역 사회 직능 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출산·양육 가정, 65세 이상 어르신, 돌봄·빈곤 위기 가구 등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센터를 찾는 분들을 위한 종합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게 주민들이 서로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을 서로 돕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복지 서비스는 혜택이 아닌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그 빛을 발하지는 어렵다. 자신은 대상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상담도 하지 않고 지레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내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없이 이야기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나 자신이나 이웃이 힘 때 힘들고 어렵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주고 머리를 맞대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역 주민과의 연대 없이는 능동적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또한 대상자를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 제도만 만들어 놓았다고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답하고 적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는 많이 해소되리라 본다. 그리고 자립의 기간 동안 사회적 비용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누구나 새로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복지 서비스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힐링하세요



이천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장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전국 22개 국립공원 면적의 34%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해상형 국립공원이다. 다도해는 말 그대로 섬이 많은 바다를 일컫으며,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부터 흑산도~홍도까지 서쪽으로 전개되는 천대만상의 크고 작은 섬들과 기암괴석, 에메랄드 빛 하늘과 짙푸른 바다 물결이 장관이다. 울창한 송림과 어우러져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 등 천혜의 자연 경관과 다양한 문화 자원을 간직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천사대교(일명 새천년대교) 개통과 세계 최초의 '섬의 날' 국가 기념일 지정(도서개발촉진법, 8월 8일)

기념 행사가 목포에서 성대하게 개최되는 등 섬 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지역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수도 작년 대비 30% 가량 증가하였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가운데 신안군과 진도군의 경우 탐방 패턴을 분석해 보면 여행사를 통한 단체 탐방객이 60%,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0%, 최대 방문 지로는 흑산도·홍도가 66%를 차지한다. 주요 탐방 목적으로는 섬 특유의 생활 문화를 체험하거나 유람선 등을 타고 해상 경관을 감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해상형 국립공원도 요즘의 산악형 국립공원의 탐방 행태와 같이 고지대 정복형이 아닌 저지대 수평·순환형으로 자연 경관(문화 자원)을 천천히 즐기고 체험하는 슬로우 탐방 문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섬 지역 방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흑산도 이야기', '늘 푸른 홍도 숲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다도

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가 기존의 흑산도, 홍도지구 기존 1박 2일형 프로그램을 각각의 도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자연 경관, 자연 생태, 문화 자원, 주민들의 생활상 등이 어우러진 이야기로 재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국립공원 명품 마을인 영산도와 관매도를 중심으로 생태 관광 프로그램 '나만의 열두 가지 휴식'과 '관매도 마실길 따라'를 1박 2일로 운영하고 있다.

생태 관광이란 '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염두에 두고 자연 지역으로 떠나는 책임 있는 여행'이라고 세계생태관광협회(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는 정의하고 있다. 이는 탐방객에게는 잘 보존되어 있는 우수한 자연 환경과 순수함이 살아있는 어촌 마을 체험, 청정 국립공원에서 생산된 특산물 등을 제공해 자연과 지역 문화를 만끽하는 나만의 힐링 타임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에게는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영산도의 경우 2012년 국립공원 명품 마을 지정 후 불과 7년 만에 탐방객은 당초 300명에서 5865명으로 크게 늘고 마을 소득도 증대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 지역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영산도는 가장 성공적인 생태 관광 모범 사례로 언론 등에 소개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꾸준하게 찾는 장소가 됐다.

우리 사무소는 '바다-섬-사람을 연결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해상공원 선도사무소'로서, 다도해의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선박을 활용한 해상 탐방 프로그램을 국립공원 최초로 기획·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일상의 삶에 지친 국민들이 섬 지역에서 추억을 쌓으며 또 다른 활력을 얻으면 좋겠다. 지역 경제를 살찌우고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섬 여행에 여러분들을 초청한다.

社說

'5·18 사진첩 공개 결정' 진상 규명 기대된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보안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사령부는 엇그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7월 국가기록원의 위원회를 열어 2018년 7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사진첩 13권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들 사진첩에는 1980년 5월 항쟁 당시 보안사령부가 광주 시민과 계엄군의 활동을 채증한 1769장의 사진이 담겨 있다. 그중에는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의 현장 취재기자들로부터 무너짐은 소통적 언어와 대화적 공동체의 무너짐이다. 탑이 무너진 이유 또한 아뮴의 분노가 아니고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서로를 질시하고 배제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언어는 권력의 위장과 왜곡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진실의 표현과 공유를 위한 통로다. 자주 맥락 없는 수많은 언어의 파편들은 서로에게 다가가는 길 대신에 배제와 편벽기의 유희만을 본다. 이제, 힘과 권력의 증표가 된 혼돈의 말을 반복 생산하는 대신에 모두를 위한 '하나의 언어'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사진 자료 공개는 특별법에 따라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 활동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진첩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개를 촉구해 온 박 의원의 역할이 컸다. 박 의원은 나아가 "검찰과 국정원 등에 보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5·18 자료들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보관해 왔던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바 있다. 하지만 이관 당시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시 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그동안 열람이 불가능했다.

임종석 전 의원 불출마 선언 정치 쇄신 계기로

부산 금정구에서 3선을 한 김세연(47) 자유한국당 의원과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던 임종석(5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물러나자"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물러나자"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물러나자"라고 말했다.

이날 임 전 실장도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 불출마는 물론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학창 시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3기 의장을 맡았던 임 전 실장은 지난 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적 대권주자였던 임 전 실장의 사실상 총선 불출마 선언은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이다. 서울 종로구 출마가 점쳐지던 임 전 비서실장의 총선 도전은 대권 가도로 진입하기 위한 물 불기쯤으로 여겨졌던 마당이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그의 불출마 선언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인적 쇄신' 열풍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 중진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압박도 거세질 것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이라 해서 다를 게 없다. 한국당은 김세연 의원이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당의 깨끗한 해체와 현역 전원 옹퇴'까지 주장한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조선인 이철희·표창원 의원의 선도적 불출마 선언 파장의 불마가 사위여 가던 참에 마침 임종석·김세연 두 여야 중진 정치인의 불출마 선언은 새 정치를 향한 새로운 불씨를 지켰다. 이들의 결단이 한국 정치 쇄신의 큰 계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無等鼓**

1988년 3월 15일 군에 입대해 강원도 화천의 모 부대로 배치받았다. 4월에도 눈이 내릴 정도의 날씨에 신병교육대 추위를 이기게 해 준 것은 일명 '깔깔이'였다. 야전복 안에 덧입는 옷으로 공식 명칭은 방상내피(防霜內皮)다. 솜으로 누빈 일종의 패딩이지만 내복에다 전투복까지 여러 겹 겹쳐 입으면 그러저러 강원도 맹추위로 견딜 만했다.

신병교육대 훈련 중 아버지 부음을 듣고 광주로 내려올 때도 입고 있었던 옷이다. 서울 상봉터미널을 거쳐 광주행 버스에 올라서야 깔깔이를 발견했다. 눈물로 깔깔이와 인연을 맺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다는 강원도 대성산과 화악산 사이 영하 30도의 겨울을 두 번이나 이겨 내게 해 준 고마운 존재였다.

깔깔이는 원래 미군 군복인 'M-65 파카'에서 비롯됐다. 1965년부터 보급된 야전 재킷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방한내피가 있었는데 이것이 깔깔이의 원조다. 울 소재로 만들어 피부에 닿는 느낌이 까칠까칠해 깔깔이라고 부르게 됐다. 우리 군에선 울 대신 나일론으로 깔깔이 외피

를 만들어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이다. 패딩이 없던 시절 깔깔이는 사회에서도 방한복으로 인기를 누렸다. 제대한 군인들이 가지고 나온 노란색 깔깔이는 추운 겨울 가족들이 돌려 가면서 입던 추억의 패딩이었다.

국방부가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처음으로 패딩 점퍼를 보급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병사 12만 4000명에게 대한민국 육군을 의미하는 'ROKA'가 새겨진 패딩 점퍼를 지급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고 한다. 보은성은 기본이고 유행하는 디자인에 생활방수 기능까지 갖춰 지급받은 병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91점이나 됐다.

2년 전부터 롱 패딩이 젊은이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등장하면서 '등골 브레이커' 계보를 잇고 있다. 올해는 숏 패딩이 유행하지만 유령 브랜드 패딩은 한 발에 수십만 원을 호가한다. 이에 비해 군용 패딩 점퍼 단가는 개당 6만 원이 안 된다고 한다. 거품을 속면 군용 패딩 점퍼가 깔깔이의 뒤를 이어 장수하는 추억의 옷이 됐으면 좋겠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